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2월 21일(금) 제 3040호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원팔거로 1614(상림동 60)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정헌율 익산시장) 민선8기 3차년도 2차 회의가 20일 '익산 고도 한눈애(愛) 세계유산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익산시청>

세계관광청,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에 무주군 선정

무주, 전통문화·친환경 관광 모델로 국제적 주목
한국관광공사 컨설팅 통해 도-무주군 최종 선정 대응
올해 12월 최종 발표…글로벌 관광지로 부상할 기회

무주군 무주읍이 세계관광청(UN Tourism)에서 주관하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s)'공모에서 한국 후보로 선정됐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을 발굴하는 국제 프로젝트로, 세계 각국의 숨겨진 관광지를 조명하고 홍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는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2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발표를 통해 무주군 무주읍이 8개 한국 대표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됐다. 무주읍은 이제 세계 관광청(UN Tourism)의 최종 심사 단계를 거쳐 12월 중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무주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태권도로 대표되는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다. 덕유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무주반딧불축제, 태권도원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친환경 농업과 전통문화 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면 UN Tourism 공식 로고 사용, 국제 홍보 페이지 제작 등의 혜택을 통해 무주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무주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게 되며 한국의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는 앞서 ▲고창 운곡습지 및 고인돌(2021) ▲전남 신안 퍼플섬(2021) ▲경남 하동 평사리 섬진강마을(2022) ▲제주 세화마을·동백마을, 전남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2023) 등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바 있다. 무주는 오는 4월 말까지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거쳐 UN Tourism에 공식 출품될 예정이며 이후 UN Tourism의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무주가 한국 대표로 선정된 것은 자연·문화·지역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이다"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될 경우 무주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전북, 3천억 들여 청년농업인 육성 '총력'

22개 사업, 3천4백2억 투자 청년 농업인 육성 강화
청년 농업인 진입부터 성장까지 3단계 맞춤 지원
전문 교육 및 정착지원금·농지구입자금 등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청년농촌 보금자리 4개 지구 확대로 안정적 정착 도모

전북자치도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활력있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2025년 22개 세부사업에 3,4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청년들이 농업분야에 창업하는데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진입, 정착, 성장 등 3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예비 청년 농업인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창농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는 5천325명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05개 과정 농업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건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156명을 대상으로 3개 부문 20개월에 걸쳐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희망자에게는 전문가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축산연구소에서는 2기수 30명을 한우사양 관리와 인공수정 등 전문적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최신 축산 기술을 농장에 직접 적용하는 실습을 진행, 청년들의 축산분야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의 영농 초기 불안정한 소득을 뒷받침하고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주거 마련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창업농 신규 선발 인원을 728명으로 늘리고 영농정착지원금 238억원을 지급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구입, 시설설치 운영자금 등을 위한 후계농업인육성자금을 최대 5억, 연 1.5%로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 가능하다. 또한, 정책자금 대출액의 납부이자 중 0.5%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고 농지, 축사 등 임차료의 50%(최대 500만원) 지원 등 총 6억원이 투입된다. 그외, 농림수산발전 기금을 통해 운영자금 1억, 시설자금 10억(연 0~2%)까지 융자 지원한다.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농촌 보금자리조성 사업을 4개 지구로 확대 추진하며 이를 위해 12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관리한다.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전국 최초로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 사업을 18개소로 확대하고 79억원을 투자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우리도는 청년농의 지속적인 관심과 육성 정책을 통해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서 8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올해도 청년들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자치도, 이차전지 산업 핵심거점 본격 추진

새만금 특화단지 기반, 연구·인력·기업 전방위 지원
R&D인프라 확충·배터리아카데미·KAIST대학원 인재 양성
배전선로 증설 등 기반 시설 확충·기업 경쟁력 강화

전북자치도가 개정된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혁신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산업 거점 마련의 기반을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인프라 구축, 핵심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 인프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에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와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들 센터는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소재 연구 및 재자원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차전지 제조환경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유치도 계획하고 있어, 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2027년까지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계별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실무와 연구개발(R&D)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배터리아카데미, 군산대학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이차전지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대학 지정에도 재도전할 계획이며, KAIST 이차전지 대학원 설립도 추진해 차세대 기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도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배전선로 증설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기술 개발 및 맞춤형 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재·부품 기업들의 사업화 성공을 돕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판로 개척을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최준호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道, 22억5천만원 투입 '빈집재생사업'추진

2015년부터 전국 최초 희망하우스 사업 진행…올해 90곳 정비, 도심·농어촌 빈집에 새 활력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4년까지 981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올해에는 2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동당 최대 2천500만원을 지원, 9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 범위를 기존의 농어촌 지역에서 도심 빈집까지 확장하고 지원 대상도 농촌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한다.

또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시설 개선형, 문화공간형, 주민공간 조성형으로 변환하는 사업도 통합 운영된다.

주거시설 개선형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지역 문화·예술활동가, 농촌 유학생 등에게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로 제공된다.

문화공간형은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빈집을 무상 임대해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공간 조성형은 빈집을 철거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텃밭, 쉼터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전북자치도의 지역 활성화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 2024년 만족도 조사에서는 89%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도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2월 중에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 모집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단순한 건축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다"며 "방치된 빈집을 재생해 주거공간과 주민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번 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와 활력 넘치는 공동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전북도립국악원 준공 전 최종 점검

총사업비 236억 투입, 국악 교육 등 최적의 시설 구축

전북자치도가 도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악 교육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준공을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섰다.

20일,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악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공 품질과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국악원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며 마무리 작업을 독려했다.

전북도립국악원 신청사는 총사업비 236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84-1번지에 건설 중이며 연면적 6천3백67㎡(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은 국악을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국악연수실(14개 반)을 비롯해, 다목적공연장,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국악 전문 공간이다.

이 시설은 2023년 3월 착공 후, 올해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월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

도는 국악원이 전문 국악 교육 및 연구 공간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국악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을 위한 국악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통국악 공연과 현대적 해석이 결합된 다양한 무대를 기획해 국악 대중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준공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마무리 작업을 하겠다"며 "도립국악원 준공을 통해 도민들이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및 공직감찰 '최우수상'

행안부 주관 공직기강 확립 정부포상서 기관·임철승 총괄팀장 동시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직기강 확립 정부포상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공직감찰 분야'에서도 임철승 감사총괄팀장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돼 기관 및 개인이 동시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20일 '2025년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에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감사공무원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는 포럼 중 지방감사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기관 간 감사·감찰 전문성을 강화하는 자리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한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를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독일연금공단이 도내 거주 파독 간호사들에게 연금 지급을 위한 생명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관련 규정 부재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실거주 여부 확인 후 공인조례에 따라 생명증명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파독 간호사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직감찰활동 분야에서도 '찾아가는 현장소통 패트롤'을 운영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직속기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 및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부조리한 관행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 취약 분야의 부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김진철 사무국장은 "누구나 쉽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도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실효성 높은 감사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행안부 주관 공직기강 확립 정부포상 '사전 컨설팅감사' 최우수 기관, '공직감찰 분야' 임철승 감사총괄팀장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김은지 기자

문승우 도의회 의장,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 촉구

문승우 도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인구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문 의장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현 '인구절벽'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19년 전인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4차례에 걸쳐 발표하며 40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으나,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또한 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을 고려한 현금성 지원에 급급해 출혈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구인지 예·결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성 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가칭)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재정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 기자

윤준병 의원,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 치유법' 대표발의

윤 의원, "작년 국감서 국회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남용으로 부결돼"

윤준병 의원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돼 온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0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시장격리곡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융자·보조의 규모 및 방법과 기간을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위법적 요소를 치유하는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한 자금에 대해 '양곡관리법' 제16조 제3항에 근거해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일뿐, 농협경제지주의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상거래방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냈다.

윤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명백한 위법사항임을 따져 묻고, 국감 후속 조치로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남용으로 부결돼 위법적 요소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이명연 의원, 지방보조사업자 친환경 상패 활성화 근거 마련

전북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가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적 성격을 가진 부문의 친환경 정책 이행이 보다 강화돼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전북자치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이 친환경 상패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보조사업자도 친환경 상패 이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제정한 바 있다.

/김관 기자

복지환경국, 전주형 복지안전망 구축등 6대 추진전략 제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도 주력

전주시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20일 복지환경국 신년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신바람 복지와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복지·환경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6대 추진전략은 ▲일상이 행복한 복지 도시 조성을 위한 전주형 복지안전망 구축 ▲건강하고 풍요로운 어르신 복지 추진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여성·가족 권익 증진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동물복지 및 종 보전 대표기관으로 도약이다.

먼저 시는 '함께라면' 사업을 확대해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과 저소득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단을 통해 일자리 제공을 연중 추진한다.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 시는 65세 이상 돌봄 고위험군 노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주거 등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장애인의 유형별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아동발달 지연 조기발견 프로젝트'를 확대해 많은 아이들이 조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전주시는 20일 복지환경국 신년 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신바람 복지와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복지·환경 분야 6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산업부문의 경우 시는 환경오염원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구성키로 했다. 끝으로 시는 전주동물원에 대해서는 동물복지 및 종 보전 대표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와 환경은 시민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에서 복지혜택을 누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11개 특성화도서관서 문화생활 제공

전시공연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시민들 문화생활 위해 노력할 것"

전주시는 올해 11개 특성화도서관에서 전시와 공연, 강연, 체험 등 다채로운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책의 도시'를 선포한 전주시는 기존 공공도서관과는 차별화된 11개 특성화도서관을 조성·운영하면서, 각 도서관별로 개성 있고 특화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먼저 전주시 대표 관광명소인 덕진공원에 위치한 연화정도서관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특화도서관으로, ▲외규장각 이야기 전시 ▲최지혜·신소담 작가와의 만남 ▲수묵화 담채화 그리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또한 예술특화도서관인 서학예술마을도서관에서는 ▲기획전시: 지역예술가 12인(팀)의 월별 작품 전시 ▲'서학, 예술가와의 만남' 및 작품 창작 체험 ▲'우리 마을 예술가' 등 다양한 예술특화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각 도서관별로 ▲시인이 주관하는 시 창작 모임 '시뜨개'와 시인초청강연(학산숲속시집도서관) ▲과학의 달 기념 '과학마술공연'(모롱지도서관) ▲원예체험 및 숲해설(건지산숲속도서관) ▲아트북·여행영어 체험 및 국내·외 여행작가 강연(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동네책방 협력강연 및 소설가 초청강연(책기둥도서관) ▲ 한옥마을 공방 연계 체험(한옥마을도서관)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시 곳곳에 위치한 특성화도서관은 책과 함께 일상이 여행이 되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전주시 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특성화도서관의 위치와 운영시간, 특화 프로그램 일정 등은 전주시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1104억 원 투입

시민 눈높이 맞춤 주자청책 추진 및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확대·단속시간 단축

전주시가 올 한해 도심 내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차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탄력적인 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주차단속 카메라의 운영시간을 개선하고, 점심시간 단속유예 확대, 주말·공휴일 단속시간 단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10시까지 운영되던 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까지 단축하는 한편, 단속유예시간이 5분이었던 전주역과 터미널 등 교통혼잡지역도 10분~20분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시간을 개선키로 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던 단속카메라 운영시간을 주말 교통량 감소를 감안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점심시간 단속유예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단, 백제대로와 팔달로, 기린대로 등 일부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도 평일 단속시간이 적용되며,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정차와 민원신고에 따른 통행 불편 해소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 차량 등을 이용한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시는 단속카메라 단속 완화 기준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재 행정예고를 진행 중으로, 향후 전주시 누리집과 SNS, 대면 홍보 등을 거쳐 오는 3월 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절대적인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도 꾸준히 펼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주천 매곡교(159면) ▲서신동 선수촌공원(96면) ▲충경로(41면) 등 일부 도로의 가장자리를 활용해 쾌적하고 편리한 스마트 노상주차장을 적극 조성키로 했다.

동시에 구도심과 신도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총 71억 원을 들여 ▲금암동 금암초 인근(33면) ▲조촌동 전북중 인근(39면) ▲에코시티 주15(40면) 노외주차장을 조성한다

나아가 시는 중·장기적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도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시는 한옥마을 관광객 수용과 대형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따른 대규모 주차수요에 대비해 총사업비 776억 원을 투입해 3개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주차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차정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제5기 마을세무사 초청 간담회 개최…운영 활성화 협조 도모

전주시는 20일 대우빌딩 7층 회의실에서 제5기 전주시 마을세무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 관련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해 주는 제도로, 시는 19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의 분야별 정보-세금공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16년 6월 시행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서 누적 1700여 건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2025년 마을세무사 운영 방향과 지방소득세 위택스 전자신고 활성화 방안, 최근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내용 등 시민들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마을세무사들은 전화 상담의 경우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방문 상담을 받고 있지만, 부가가치세(1월, 7월)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신고 달처럼 본업으로 바쁜 달에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자주 개정되는 지방세법,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 등에 관한 개정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는 건의도 제시했다.

시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들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바쁜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 준 마을세무사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로 시민 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보건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희망자 상시 모집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소견서 발급받은 자 등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올해도 지속 추진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돌보고, 나아가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7월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599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뢰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이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9만 2000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상담이 종결된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 8회기의 추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심리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마음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해진 시대에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주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는 전주시민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다양한 마음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블로그(blog.naver.com/mindhealingcenter) 또는 전화(063-281-857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시군 우수 치안사례 선발 사업' 추진

전북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도민 체감 치안 강화를 위해 시군별 우수 치안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해 맞춤형 치안 환경을 조성하는 '2025년 시군 우수 치안사례 선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우수사례 선발은 ▲범죄 예방 및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진행된다.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시군을 선정하며 선정된 시군에는 도비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도지사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익산시, 완주군, 부안군이 선정돼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선도했다. ▲익산시는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했고 ▲완주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협업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부안군은 서림공원 범죄예방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였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우수사례 선발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연주 위원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각 시군의 치안 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71명 후보자 등록

51개 금고에 71명 후보자 등록…평균 경쟁률 1.4대 1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51개 금고에 71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20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1.4대 1이다.

51개 금고 중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등록한 17개 금고는 선거를 치르는 반면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한 34개 금고는 선거사무가 중단된다.

34개 금고는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금고별 후보자 등록 현황과 후보자 학력·경력 등 주요 정보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관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도, 식품기업 농생명 혁신기관 그랜드 투어 지원

순창 20개 식품기업 참여…국가식품클러스터, 농진원 등 식품기업 맞춤형 투어 추진

기관별 핵심 연구시설 벤치마킹 및 협력 방안 등 모색

전북자치도는 20일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협력하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협력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인프라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순창 지역 20개 식품기업이 참여했으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연구기관별 특화된 연구·개발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참가 기업들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소스산업화센터, 파일럿플랜트, 패키징센터 등을 견학하며, 식품 기능성 분석, 소스 개발, 시제품 생산 및 포장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전북도는 20일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협력하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협력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자 우수 인프라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기술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농생명·농업자원 분석센터 등을 방문해 농식품 기업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방안,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을 살펴봤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설비, 창업보육센터, 식품분석센터, 비즈니스센터 등을 방문해 건강기능식품 및 바이오소재 생산, 식품 안전성 분석,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논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시군 출연 연구소와 연관된 식품기업들이 농생명 혁신기관을 직접 방문해 첨단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연구기관과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진안홍삼연구소,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방문에 이어 네 번째 견학이다.

도는 오는 3월에도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식품기업들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한국여성농전북연합회 13·14대 임원 이·취임

노미성 신임 회장 취임…여성농업인 권익 향상·경영 지원 약속

전북자치도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촌사회 발전을 이끌 (사)한국여성농업인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제13·14대 임원 이·취임식이 20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김희수 도의회 부의장,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노창득 농업인단체연합회장, 시군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2021년부터 한여농 전북연합회를 이끌며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한 김현순 이임 회장에게 감사패와 재직기념패가 수여됐다. 김 회장은 4년간의 활동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어, 신임 노미성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향후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 회장은 원예작물 재배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제14대 임원진으로 김명신 수석부회장, 강미화 사업부회장, 김영희 정책부회장이 함께하며 도내 2천여명의 회원들과 다양한 교육·정책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협력 강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여름배추 실증사업 진행, 배추 수급 문제 공동 대응키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와 20일 에이티(aT)센터(서울 서초구)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우려되는 원예농산물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농업 관련 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우수 신품종 개발과 개발 후 유통·소비 지원 ▲원예농산물 재배 적지 발굴과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 ▲엠에이(MA) 포장 기법* 실증 농산물 저장기간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더위 견딤성(내서성)이 강한 신품종 '하라듀' 등 여름배추 실증사업을 준고랭지(해발고도 400~500m 이상)에서 추진해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배추 수급 안정은 농촌진흥청 정책지원·현안 해결 프로젝트 '우리농UP 앞으로' 중 하나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20일 aT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주요 육성 품종과 기술을 유통·소비 과정에서 더 체계적으로 실증할 계획이다"라며 "신품종 농산물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발판을 마련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원예농산물 수급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두 기관은 협약식 뒤 열린 제19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준호 기자

한전협 전공 정기총회서 전북회원 6명 수상 '영예'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재수)는 지난 20일 충북 오송 한국전기 공사협회 중앙회 교육동 대강당에서 열린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전북 회원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고창 (유)삼우전기 양승용 대표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익산 주식회사 기선전력 서상현 대표이사가 한국전력공사 사장 감사패를, 완주 두원산업 주식회사 오두환 대표이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또한'제44회 전기공사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는 전주 주식회사 서정이앤지 서기섭 대표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부안 주식회사 창일 이준석 대표이사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표창패를, 무주 (유)조선전력 조영민 대표이사가 한국 전력공사 사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완주생강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학술연구 세미나 개최

학계·지자체·농업인과 협력해 미래 전략 모색…전통농업시스템 세계적 가치 조망

전북자치도가 완주군, (사)지역활력센터, 전북대학교,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보존위원회와 함께 지난 19일 봉동읍 주민센터에서 '완주생강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이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와 완주군 관계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 농업 전문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5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지숙 사무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최명섭 팀장, 전북대 신병욱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지숙 사무관은 '농업유산 관련 제도적 동향'을, 신병욱 교수는 '전통 한옥과 완주 시앙굴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발표했으며 최명섭 팀장은 '봉동생강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품질인증제도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배재대 최종희 교수, 농촌진흥청 정명철 연구사, 한국농어촌공사 백승석 부장 등이 참여해 완주생강의 차별성과 세계적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2019년 제13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전북자치도와 완주군의 지원 속에서 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업유산 활성화, 지역 기반 강화, 전통농법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사업의 연장선에서 완주생강이 단순한 지역 특산물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농업유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상품 판매

23종 품목, 태풍·우박·화재까지 보장…농가 부담 낮춘 정책보험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김용재)은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23종)상품 판매를 시작해 오는 11월 28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은 시설물의(하우스 등) 손해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설작물엔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고추, 멜론과 장미, 카네이션, 백합 등 화훼를 포함 23종 품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태풍, 우박, 지진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새 및 동물로부터 피해받는 조수해 보장과 함께 화재 다양한 재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원예시설 보상기준에 일조량부족 보장기준을 신설하고, 부대시설 항목에 선별기 등을 추가하는 등 개선이 됐고, 가입 농가는 필요에 따라 보장받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정책보험인만큼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여기에 전북의 각 지자체에서 35~50%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시군에 따라 0~15%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호우 및 대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시설농가 피해가 심각했으며, 전북 내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상품으로 2,388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해 약 223억원을 포해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1,34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가입기간은 연중 운영되고 있어 농가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2024년 실적신고

전년 대비 242억 원 증가 5,114억 원 실적 기록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전북 지역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기성 실적이 증가하며 업계의 저력을 보여줬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유제영)는 지난 18일까지 '2024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마감한 가운데 도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358개사, 기성실적 신고액 5,114억 원을 신고하며 329개사, 4,872억 원을 신고한 전년대비 4.9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도 도내 기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분야 기성실적신고액 1위는 537억원을 신고한 진흥설비(주)(대표 송호용,류국선)가 차지했고, (유)동성엔지니어링(대표 김연태)이 194억원으로 2위, ㈜제이엔지(대표 박종우)가 130억원으로 3위, (주)성현(대표 김호성)이 111억원으로 4위, 86억원으로 (유)형진기공(대표 조영준)이 5위를 차지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 기성실적신고액 1위는 50억원을 신고한 ㈜현창엔지니어링(대표 김해선)이 차지했으며, 2위는 49억원으로 ㈜다성산업개발(대표 박계남), 3위는 31억원으로 (유)신우이엔지(대표 김정기)가 각각 차지했다.

전북 지역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 내 대형 건설 프로젝트 증가 ▲노후 설비 교체 및 친환경 설비 수요 확대 ▲정부 및 지자체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꼽힌다. 특히,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스마트 설비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공사가 늘어난 것이 실적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실적은 증가했지만, 업체별 평균 실적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업체의 증가로 인해 전체 실적이 여러 업체에 분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소업체들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적 증가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사별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수주 확대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청, 한전과 산단 전력 인프라 확대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기업들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의 보조사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력공급 능력을 기존에 비해 500메가와트(MWh)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510억 원(국비 255억 원, 한전 255억 원)으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이차전지 업종에만 전력공급이 가능했으나,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업종의 대규모 전력공급을 포함해, 향후 조성될 새만금 산단 3, 7공구의 일반수요에도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으며, 시설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부담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 새만금 산단에서의 전력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전력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다각적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교육청, 새학기 전북형 늘봄학교 확대 운영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지역사회 기관 협력 학교밖 늘봄 프로그램 확대·늘봄지원실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전북형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공을 들인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형 늘봄학교의 주요 추진 내용을 담은 '2025 전북형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운영체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기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이 통합돼 늘봄학교 체제로 전면 운영된다. 집중지원 대상이 확대돼 늘봄을 희망하는 초 1~2학년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초등학교(409개)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 절차를 거쳐 내달 4일 개학과 동시에 늘봄학교를 정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전북형 늘봄학교는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북교육청은 우선 늘봄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 학생 개별 맞춤형 귀가를 위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등 관련 지침을 보완하고, 늘봄실무인력·학교 안전지킴이·경찰관 등을 활용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에도 힘을 쏟는다. 지난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무상 프로그램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학교 적응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기초학습 활동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차시씩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행사에 참여한 서거석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안 늘봄 뿐만 아니라 학교밖 늘봄도 내실화한다. 학교밖 늘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늘봄 전담 체제 완성 등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공을 들인다.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을 구축하는 한편,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 등의 인력을 배치해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남원 지역 현안 사업 포럼 개최

'남원 미래를 여는 세 가지 해답' 주제…지속가능 발전 전략 논의

대학과 지역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됐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자체 예산을 통해 남원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포럼을 지난 20일 개최했다.

'남원 미래를 여는 세 가지 해답'이라는 주제로 지역발전의 지속 가능한 전략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아내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황인섭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남원시 기관이전 유휴부지 활성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금동·쌍교동을 원도심 특화형 프로젝트로 재생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남원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도 도전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득수 전북대 조경학과 교수는 '남원 허브밸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자로 나섰다. 안 교수는 "다향(茶香)으로 피어나는 지리산 향기천지(香氣天地)라는 비전으로 지리산 사계의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김윤영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가 돌봄 제도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설계가 필요 하다"며 "고령화가 심각한 면 지역은 방문형 돌봄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강점, 단위과제 간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 교사들, '하늘이법' 부정적 95.8%‥성급한 법제화 반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돼 직권휴직·직권면직 당하게 되면 교원들 정신질환 숨기려 하게 될 것"

정부가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일명 '하늘이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지역 학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늘이법'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법제화를 반대했다. 조사 결과 참여 교사 265명 중 반대 의견이 95.8%(254명)로 대다수의 교사들이 '하늘이법'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살해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 방안을 담은 '하늘이법'을 추진 중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을 '질환교원'으로 정의했을 때, 현재 질병 휴직 상태거나 사용하게 되는 모든 교원을 잠재적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제화가 이뤄지기 전에 규칙 수준의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사전에 차단하는 교육청 차원의 재도 개선과 위원회 등의 기능 강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북의 한 교사는 "현재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일들로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법제화돼 직권휴직, 직권면직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려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사업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사범대학은 교육부와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025학년도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사업'을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관련 4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학교현장실습학기제는 예비 교원의 학교 현장 역량 강화와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19일(수) 전주대학교 진리관에서 협약의 주체인 전주대학교-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주양현중학교-전주은화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업무 협약(MOU) 체결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임산 장학관, 전주양현중학교 전승덕 교장, 전주은화학교 박계숙 교장, 전주대학교 윤마병 사범대학장을 비롯해 협약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자치도, 2025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경력강사 모집

아동복지시설 · 초·중등학교 대상 SW 교육 실시… 디지털 교육 확대 · SW·AI 분야 핵심 인재 배출

전북자치도와 SW미래채움 전북센터가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 SW미래채움 사업'의 일환으로 SW·AI 교육을 담당할 전문 경력 강사를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전문퇴직자 등이며 지원 자격은 12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 이수 경력이 있는 자이다.

모집된 강사는 ▲기본 소양 확산 ▲언플러그드 ▲메타버스 ▲AI 로보틱스 ▲AI 크리에이터 ▲코딩박스 등 총 4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역량 평가 및 참여도 평가를 거쳐 50명이 최종 위촉된다.

위촉된 강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아동복지시설 및 초·중등학교에서 SW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SW 관련 행사 참여 및 SW·AI 강사 자격증 취득 응시료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도는 이번 SW미래채움 경력강사 위촉을 통해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SW·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W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쉽게 SW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SW미래채움 강사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SW미래채움 전북센터 홈페이지(sweduh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참여기관인 플레이코딩(063-634-8971~2)을 통해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군산대학교, 제43회 전기학위 수여식 성료

국립군산대학교는 20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제43회 전기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1,184명, 석사 116명, 박사 66명 등 총 1,36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 재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립군산대학교를 찾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정 전 의장은 먼저 "국립군산대학교에 온 이유는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악조건을 딛고, 국립군산대학교가 교육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도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 학생 재능·코딩·예술 지원… 6억 9750만 투입

정읍시가 2025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6억 9750만원을 투입해 학생 재능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교육지원 사업을 심의·확정했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지역 내 학교 보조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이날 회의에는 유호연 부시장(위원장)과 시의원, 고정희 문화행정국장, 교육지원청 장학사, 학부모 등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학생 재능교육 육성 지원사업 ▲인문·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 등 교육경비 지원사업 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술로 정읍아이 키우기 지원사업 ▲정읍농악 활성화학교 육성 지원사업 ▲코딩교육 지원사업 ▲스쿨버스 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행복학교, 초등·중학 34명 졸업…평균연령 76세

익산시가 지난 20일 익산시평생학습관에서 '익산행복학교 제5회 초등과정·제2회 중학과정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등과정 16명, 중학과정 18명 등 졸업생 34명을 비롯해 교사, 가족, 지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졸업생들은 검정고시 없이 초등·중학 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올해 졸업생의 평균연령은 76세로 적지 않지만 늦은 배움에 대한 열정은 청춘 못지않다.

최고령 졸업생은 이필순씨(90)다. 이씨는 이번에 수료한 초등과정에 이어 중학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익산행복학교는 2011년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23개 읍·면·동 작은도서관과 경로당 등에서 찾아가는 학습을 운영하며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박정순씨(64)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다니, 정말 꿈만 같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해준 익산시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 진행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난 20일 구시청광장 일대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2006년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발생 후, 정부는 범죄 근절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전주·익산·정읍 성문화센터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물을 배부했고, 아동 성폭력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실천을 촉구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놀며 성장하는 공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휴식 공간 제공

익산 신흥공원에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지난 20일 익산교육지원청과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정성환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예산 지원 등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익산교육지원청의 지원 예산을 포함해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오는 8월까지 신흥공원 내 1.1ha 부지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창의성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신흥공원 내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색감의 초화류와 화목류를 심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놀며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익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전국 최고 수준의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선도적인 숲속 체험·놀이 공간 구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실과소장 '공감소통 간담회' 개최

실과소별 현안 업무·민원·건의 사업 등 경청…"정보 교류·협력 체계 강화 간담회 정례화"

정읍시가 주요 역점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읍면동장 공감소통 간담회를 실시한데 이어, 20일에는 실과 소장들과 함께 '공감소통간담회'를 열고 각 부서별 추진사업의 현황을 공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초 조직개편과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부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서 공유된 주요 사업으로는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동물보호센터 신규 조성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정읍시가 지난 20일에 실과소장들과 함께 '공감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학수 시장은 "부서 간 협력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간담회를 정례화해 각 부서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라는 목표를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수도산 그림책 숲 도서관으로 소풍 가자

다양한 형태 그림책 1,900여 권 보유 · 홀로그램 콘텐츠 · 실감형 AR 핑거스토리 존 운영

익산시 수도산그림책숲도서관이 오는 이날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수도산그림책숲도서관은 수도산공원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선 그림책 특화도서관이다. 팝업북 등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 1,900여 권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산공원에 있는 도서관인 만큼 창밖으로 녹색 풍경이 펼쳐져 책을 손에 든 이들의 마음에 여유를 더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책 중심의 도서관 특성상 도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독서통장 시스템'을 도입해 방문할 때마다 읽은 책을 기록하고 개인 독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홀로그램 콘텐츠를 곳곳에 배치해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다. 또 동화 속 그림과 캐릭터를 직접 손으로 만지며 읽을 수 있는 '실감형 AR 핑거스토리 존'을 운영해 어린이에게 색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여는 시간은 오전 9시이며, 화~금요일은 오후 6시에, 주말에는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익산시 최초의 숲속도서관을 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아이, 어른 누구나 그림책을 가까이하고, 자연 속에서 사색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운영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위원장 선출…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정읍시립박물관은 지난 19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운영자문위원을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운영(유물평가)자문위원회는 박물관 운영과 유물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기존 9명의 위원 중 5명을 신규 위촉했다.

새롭게 합류한 위원은 김승범 시의원, 국립중앙박물관 민길홍, 국립광주박물관 박진일, 전북대학교박물관 이종철, 원광대학교 유미나 교수 등이다.

또한,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다.

위촉식 후 열린 자문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운영 계획이 보고됐다.

올해 박물관 운영 계획에는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석지 채용신 테마전 등 다양한 전시 사업과 함께 ▲어린이 국가유산 발굴 체험장 운영 ▲소장품 구입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세부적인 질의와 자문을 이어가며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립미술관, 출향작가 기획전 개막

'집으로 가는 길_귀로 Ⅱ'… 고향의 예술을 조명하다

정읍시립미술관이 출향작가 기획전 '집으로 가는 길_귀로 Ⅱ'를 개최해 정읍을 떠나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2022년 첫 번째 출향작가 기획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1951~1980년 출생 출향작가들과 정읍을 기반으로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정읍 예술의 흐름을 조망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읍 출신 14명의 작가들이 선보이는 평면·입체 작품 68점과 도립미술관이 소장한 9명의 작가 작품 13점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관람객들이 직접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시는 오는 4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전시·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063-539-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호원대, 제39회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20일 11시 호원대 문화체육관에서 제39회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학위수여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김영일 군산시의원, 서동석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063명이 학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강희성 총장의 훈사를 시작으로 강희중 이사장의 고사, 서동석 총동창회장,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전체 수석으로 실용음학학부 이정우 학생이 이사장상을 수상하였으며, 학부과별 수석자로 IT소프트웨어보안학과 김가영 학생 외 21명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공연미디어학부의 박O윤씨가 81세의 나이로 최고령 졸업생 타이틀을 얻었다. 박O윤씨는 "자녀들 뒷바라지에 미뤘던 학업을 늦게나마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학업을 응원해준 가족 및 동료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희성 총장은 훈사를 통해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을 축하하며,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겸손하며 솔선수범하는 사회의 리더가 되어 모교를 빛내주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생활개선회 군산시연합회 신임 회장, 배지영 취임

새해를 맞아 (새)한국생활개선회 군산시연합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능력향상 고취는 물론 지속적인 농촌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전통문화 실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단체다.

지난 1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도의원, 농업인 단체장, 한국생활개선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군산시생활개선회 임원 및 읍면동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2대 신임 배지영 회장(사진)은 "라영심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원들이 닦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의 역량 개발 및 생활개선회의 위상을 높여 갈 것."이라는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신임 배지영 회장은 회현면 생활개선회장, 연합회 총무, 한국여성농업인 군산시연합회 사무차장 등 지금까지 각종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앞장서 왔다.

신임 회장의 취임과 함께 600여 명의 생활개선회는 앞으로도 농업인 단체 간의 협력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 익산시의회 의장단, '시정발전 모색'

익산시는 지난 19일 익산시의회 의장단과 시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확대하는 '전북권 광역전철(철도) 구축' ▲원활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진입로 부지 매입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혁신거점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익산 디지털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폭 확대

전북 시군 중 두 번째 많은 물량 배정, 3억7200만원 예산 투입…내달 중순 본격 공사 착수

고창군이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공사와 창호 교체 등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창군이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공사와 창호 교체 등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총 3억7200만원(62동)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업비(2억6400만원)와 물량(44동) 모두 올해 대폭 늘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 14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다.

세대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며, 단열공사·보일러 공사·창호 교체·도배·장판 시공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집수리를 진행한다.

또한, 군은 고창지역자활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2~3월 중 신청을 받아 최근 3년간 유사한 지원을 받은 이력을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집수리 비용 부담이 커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해 따뜻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

3월 14일까지 전국 확대…내달 28일 이후 어디서나 발급

부안군은 지난 14일부터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급되는 1단계 대상 지역은 전북, 대구, 대전, 울산, 강원 등으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오는 3월 14일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전국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 군민으로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먼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또 다른 방법은 실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것이다.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후 IC 주민등록증 또는 QR코드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군민들에게 스마트 행정을 제공하고 편의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는 전면 발급은 내달 28일 이후에 가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장학재단, 장학숙 입사생 81명 최종 선발

(재)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심덕섭)이 20일 고창(서울·전주) 장학숙 입사생 81명을 최종 선발하고,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입사 설명회를 열었다.

고창군장학재단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대학생들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서울과 전주에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면학 분위기 조성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1인실로 운영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침대, 의자, 노후 싱크대 교체등 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 장학숙은 29명, 전주 장학숙은 52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날에는 80여명의 입사생과 학부모가 참석해 화재예방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학숙 위치와 시설 현황, 입사 등록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장학숙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이사장은 "앞으로 고창을 이끌어 갈 주역들을 장학숙 입사생으로 선발해 기쁘다"며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 지원

올해 23가구에 총 1억 3800만원, 가구당 600만원 한도… 3월 6일까지 신청 접수

부안군은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2025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조사해 주거 안정과 에너지 효율화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23가구에 총 1억 3800만원(복권기금 50%, 군비 50%)이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노후 불량주택으로 보수가 시급한 주택부터 실시하게 된다.

주택 보수를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저소득계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열악한 주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의회, 지역발전 및 농업·경제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제359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20일 오전9시 제359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안군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안 반다비볼링장 민간위탁 동의안, 각종 건의안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지역 발전과 농업·경제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 3건이 채택돼 주목을 받았다.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특별자치도 후보 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2036년 하계올림픽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치되도록 정부와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및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민들의 경작권을 제한하고 소득감소를 초래해 농업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농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촉구 건의안'은 최근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난방유 제도를 개편해 정부가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하고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뜻깊은 조례와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경영안정 도와

내달부터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예비 청년농 대상 물류비·경영 · 기술 컨설팅 등 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미래 농업의 인재를 육성하고, 농산물의 안정된 생산과 품질관리로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구축됐다.

특히 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개월의 전문 보육과정을 거친 예비 청년농업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재배경험과 경영 노하우을 쌓게하며 성공적인 창업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추진하는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한 예비 청년농(29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3천만원(자부담 없는 100%보조)로 매년 물류비, 경영·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 향후 초기 창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본사업을 통해 미래농업을 이끌 역량 있는 청년농부의 창업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는 한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연계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폭력예방 연합캠페인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김제터미널 사거리에서 아동 성폭력 근절에 모든 시민의 동참을 위해 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해결 의지를 다지자는 뜻에서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성폭력상담소, 김제경찰서, 김제시가족센터,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어린이집연합회 등 민·관·경 40여명이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해 폭력 예방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와 함께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시민들에게 배부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추방 홍보 및 예방 활동을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깨끗한 축산농장 17개소 신규 지정 추진

부안군은 2025년 깨끗한 축산농장 17개소를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인증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악취를 최소화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을 유지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부여된다.

군은 지금까지 총 144개소(한육우 41개소, 돼지 11개소, 닭 75개소, 오리 17개소)의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했으며 올해는 17개소를 추가해 총 161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를 받은 농가로 축사 바닥과 분뇨처리 시설 관리 상태, 악취 발생 여부와 가축분뇨 관리, 경관 등을 평가한다

축종별 평가표의 총점이 70점(가점 포함) 이상이고 기본 요건 확인 사항이 모두 적합한 경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군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정부와 군에서 지원하는 축산 보조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등 혜택을 제공해 축산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많은 축산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영·유아 책꾸러미 배부 사업 진행

김제시립도서관은 내달 4일부터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 대상의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총 3단계로 이뤄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사업은 1단계 북스타트, 2단계 북스타트 플러스, 3단계 북스타트 보물상자으로 나눠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참여자는 김제시체육관 임시자료실, 만경도서관, 금구도서관에서 보호자 신분증과 1년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각 단계별로 참여자는 가방, 북스타트 가이드북, 그림책 2권 등으로 구성된 책꾸러미를 배부 받을 수 있다.

단 이전에 동일 단계를 수령한 경우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사업을 통해 모든 어린이가 책과 친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봉사 리더 양성…김제자원봉사대학 신입생 입학식 가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20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신입생 32명을 대상으로 한 2025 김제자원봉사대학 입학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4월 17일까지 총 9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전문 강의를 진행한다.

올해 교육 과정은 스위치온 김난희 대표와 시민교육콘텐츠 연구소 강정모 소장을 초빙해 탄소중립실천을 주제로 한 자원봉사 리더양성 및 효율적 자원봉사를 위한 토론, 퍼실리테이션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교육생들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액션플랜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김제시 내 마을 2곳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궁행원 센터장은"앞으로도 탄소중립실천을 선도하는 자원봉사 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목표

마을만들기 사업설명회 개최

고창군이 본격적인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사업 추진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2025년 마을만들기사업은 고창읍 꿈에그린 등 총 12개 마을이 선정됐다. 각 마을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20억원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벽화 그리기, 꽃길 조성 등 마을 경관 조성과 마을 주민 건강 증진 등 마을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대표적인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고창군은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간에 관계가 지속 발전하도록 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정마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포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했으며,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어 타 시·군의 선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민 간의 소통과 조화를 통해 마을 주민이 함께 걸어가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군, 읍면순회 군정설명회 돌입

19일 풍산면 시작, 7일간 11개 읍·면 순회…27일 적성·팔덕면으로 마무리
아동행복수당 확대·농민 기본소득 등 주요 사업 설명

최영일 군수가 2025년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비전 실현과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군정설명회에 본격 나섰다. 19일 풍산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7일간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군정설명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방향을 비롯한 주요사업들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비전 실현과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군정설명회에 본격 나섰다.

첫 일정인 풍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최 군수는 "'불망초심(不忘初心)'의 자세로, 처음의 다짐을 잊지 않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고하며, 군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행복수당 확대, 일자리 3,380개 확보, 농민 기본소득 확대, 노인 이·미용비 지원, 청년종자통장, 경천·양지천 수변 정비사업 등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하고, 군민행복 실현을 위해 2025년도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최 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8일부터 18일까지 11개 읍면 320개 마을 방문을 실시해 군민 삶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짧은 시간으로 아쉬움도 많았다"며 "바로 이어진 군정설명회를 통해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한 군정 주요사업들을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 더욱 변화하고 발전하는 순창군의 도약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정설명회 일정은 19일 풍산면을 시작으로, 20일 동계면, 21일 쌍치·복흥면, 24일 유등면, 25일 인계·구림면, 26일 금과면·순창읍에 이어 27일 적성·팔덕면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의회, 용진 공공하수관로 현장 점검

성중기 의원, 시천마을 주민 민원 청취 및 개선 대책 논의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이 지난 19일 용진읍 시천마을의 공공하수관로 사업구간을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시천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공공하수관로 직관 연결 요청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성중기 의원을 비롯해 권요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완주군 및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서 관계자, 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시천마을은 2016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포함됐으나, 주민들은 보다 효율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직관 연결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성중기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안임을 공감하며, 군·도와 협의해 최적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450m 구간 98세대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삼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예정이다.

군은 6월 추가경정예산에서 국·군비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군민 마음 건강 지킨다

완주군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단 약물·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소견서 의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일간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봉동·용진 방면 공영제 마을버스 운행

주민 요구 반영…4월말부터 신규 택지지구 포함, 하반기 전 지역 확대 도입 예정

완주군이 오는 4월 말부터 봉동, 용진 방면에도 공영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공영제 마을버스 운행으로 주민들은 전주 시내버스 요금 1,500원(교통카드 사용 시 1,450원)에서 마을버스 요금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봉동, 용진 방면 마을버스는 50번대, 500번대 전주시내버스 개편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삼봉지구, 운곡지구 등 신규택지 개발지구를 확대 운행하고, 둔산리~봉동 소재지, 테크노2단지 노선신설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운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운행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장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노선개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시간표를 안내하는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고, 마을방송과 현수막 게시, 버스 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 전에 약 2~3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두어 추가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범 운행기간에는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은 마을버스 공영제 1단계로 2021년 6월 이서지역 운행을 시작으로 삼례, 상관, 소양, 구이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봉동, 용진 방면 운행에 이어 하반기에는 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까지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청년마루, 사회복지관과 청년 지원 협약 체결

지난 19일 남원청년마루에서 남원사회복지관과 남원청년마루가 지속적인 협업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청년마루는 남원 청년들의 취·창업을 도우며 청년들의 소통, 교류, 협력,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남원사회복지관은 1996년 설립 이후, 가족 복지, 지역사회 보호, 교육 문화 사업 등 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 교류 활동 참가자 공동 발굴 ▲청년 문화 · 체험 교류 활동 공동 기획 및 진행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남원청년마루 서대웅 사무국장은 다양한 기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남원시를 비롯한 지리산권 청년들의 열린 창구가 되도록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귀농귀촌 선도도시로 각광 벤치마킹 방문 이어져

귀농귀촌 선도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완주군이 올해도 벤치마킹 행렬이 이어지며 귀농귀촌 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19일 완주군에는 전라남도 도청과 귀농어귀촌인연합회 관계자가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귀농어귀촌교육관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인 전남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찾던 중 완주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벤치마킹에서 전라남도 관계자는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운영방법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완주군만의 귀농귀촌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14일에도 완주군에는 경북 김천시 농업기술센터가 귀농귀촌 교육학교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완주군 귀농귀촌 인구는 총 8,314명(5,675가구)으로 전북 전체 귀농귀촌 인구 2만 2,233명(1만 7,417가구)의 37.4%를 차지하는 등 2015년 이후 9년 연속 전북 귀농귀촌인구 유입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금연구역 확대·교육 등 금연 환경 조성 강화

현재흡연율 전국 대비 양호, 간접흡연 노출률 개선 필요…금연지원사업 확대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담배로부터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금연 관련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남원시 지역사회 건강 조사 결과 현재흡연율(조율) 16.6%로 전국(17.7%)보다 좋고 전북(16.7%)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자 현재흡연율(조율)은 전국(32.1%), 전북(30.7%) 대비 좋은 수준이며 2019년 40.2%에서 2024년 30.7%로 9.5%P 개선됐지만 여자 현재흡연율(조율)은 3.3%로 전북(2.8%)보다 나쁘고 전국(3.3%)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과 현재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율은 전국·전북 대비 좋은 수준이며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조율)은 12.9%로 전국(7.6%), 전북(7.2%) 대비 큰 격차로 나쁜 수준, 비흡연자의 가정 실내 노출률(조율) 또한 전국·전북 대비 나쁜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서는 전국 중1 학생의 중학교 입학 전 흡연 경험률은 1.1%이며 처음 흡연 경험 연령도 13.2세로,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해 남원시보건소는 금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흡연율 개선을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연중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니코틴 보조제(패치, 사탕, 껌)와 아로마 파이프, 구강청결제 등 보조 물품을 제공해 금단 증상을 완화하고 내소, 전화, 문자 상담으로 금연 성공을 도와준다.

둘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17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추가 지정됐으며, 지난해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아파트가 세대주의 1/2 이상의 동의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남원시 제1호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오투그란데 디아트 아파트가 제2호로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 중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의 법령 이행 확인과 흡연 행위 위반 사례를 점검·계도하며 흡연 행위 위반 시 과태료(5만 원~10만 원)를 부과해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흡연 시도 차단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대상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활용해 흡연폐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는 어린이 대상 인형극과 청소년 대상 홀로그램 교육 공연 및 숏폼 공모전을 추진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소방서, 아미산 산악사고 신속 대응…헬기 이송

순창소방서는 지난 19일 순창 아미산(515m) 정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날 낮 12시 31분, 71세 여성 오씨가 등산 중 비탈길에서 떨어져 가슴과 등 통증을 호소하며 구조 요청을 했다.

순창소방서는 구급대와 헬기를 이용해 사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피해자를 헬기를 통해 원광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번 사고는 해빙기 등산 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사례다. 해빙기인 2월부터 4월까지는 산의 얼음이 녹으며 등산로가 미끄러워지는 위험이 크다.

순창소방서는 해빙기에는 바위 절벽, 능선, 계곡 등 위험 구간을 피하고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중년층의 경우 산에서 넘어질 경우 골절 등의 부상 위험이 높아, 더욱 신중하게 산행을 해야 한다고 순창소방서는 강조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보건소, 재가장애시민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시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하지 못하는 예비 장애 및 장애시민 대상으로 재활전문요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이 월 2회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재활운동 서비스 및 관절구축예방교육, 일상생활동작훈련, 정서지원 등 폭넓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5명 대상으로 109회를 의료기관 퇴원환자, 읍면동, 복지기관 등에 의뢰, 재활 사각지대(뇌병변 등)에 놓인 장애시민을 발굴하고, 재활 평가 및 사례회의 결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했고, 서비스 수혜자로부터 90% 이상의 만족도를 얻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7억 투입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순창군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총 7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그리고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또한,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 중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순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와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군민대상 8개 분야 후보자 추천 접수

완주군이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완주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3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추천 분야는 문화교육, 나눔봉사, 경제, 애향, 효열, 체육, 농림축수산, 환경 등 총 8개 분야다. 이들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국내·외에 명예를 드높이거나 완주군의 위상을 빛나게 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군민들에게 삶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면 추천이 가능하다.

후보자 자격은 완주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혹은 완주군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이면 가능하다.

추천자는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군의회의원, 실·담당관·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사진 등을 첨부해 행정지원과(290-2252~2258)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후보자는 현지 확인을 거쳐 군민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고, 시상은 제60회 완주군민의 날에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군,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 접수…26일까지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능한 사업 분야는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 ▲산림 ▲식품 등 총 214개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사업 종사자 등이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각 분야별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농산촌미래국(농업정책과 등) 등 관련 부서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 조건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후 오는 3월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친 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 예산을 신청 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신청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본격 행보

에코토피아·웅치전적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총44건·사업비 2,560억원 규모 발굴

진안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태세에 돌입했다.

주영환 진안부군수 주재로 개최된 이 날 보고회에는 국·소 및 실·과·소장 등 24명이 참석해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 대상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의 2026년도 국가예산 사업 발굴 규모는 총44건에 총사업비 2,560억원(국비 1,487억원)이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 3차례에 걸쳐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2027년도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용담호 자원을 활용한 ▲용담호 에코토피아(460억원) ▲용담호 에코 감성관광 벨트 구축(301억원)과 주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웅치전적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300억원)을 비롯해 관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연장농공단지·홍삼한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대형 사업에 대해 주요하게 다뤄졌다.

진안군은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태세에 돌입했다.

군은 원활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반드시 상반기 중 사전절차를 이행을 완료하고, 국·소장 책임제를 실시해 사업 추가 발굴과 면밀한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주영환 진안부군수는 회의에서 "진안군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주길 바라며 관계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김승수 전 전주시장 특강 '눈길'

'多가치 배움의 날' 초청…"새로운 시각 갖고 성장하는 것 중요"

장수군이 20일 오후 2시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2025년 2월 '다(多)가치 배움의 날' 특강을 개최했다.

최훈식 군수와 공직자,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김승수 전 전주시장을 초청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관점과 안목'을 주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북 정무부지사, 제38대~39대 전주시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날 특강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장수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특강을 통해 혁신적 사고와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전 시장은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은 '관점'과 '안목'에 있다"며 "변화의 출발점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장수군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장수다움'을 찾고 사회적 연대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관점과 안목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공직자들이 먼저 용기를 가지고 일하는 방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 장수군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및 집담회 진행

임실군이 지난 17일 임실군가족센터 재직 아이돌보미 17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및 집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최근 타 시군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아동학대 유형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아동보호전문기관 유기용 관장을 초빙해 아동학대의 유형, 신고 절차, 위기 시 상황 대처법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했다.

특별교육 후 진행된 집담회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고, 아이돌보미 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아동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 민 군수는"아이돌봄사업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이돌봄사업을 발전시키고,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붕어섬 생태공원, 반려견 동반 입장 시범 사업 시행

임실군, 3월부터 4월까지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서 시범운영

이제는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으로 물든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사랑하는 반려견과 거닐 수 있게 된다.

군은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 반려견과의 동반 입장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반려동물 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실군이 가장 핫한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처음으로 반려동물에 개방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붕어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 보조견 제외)나 고양이 등 동물은 동반 입장이 불가했다.

하지만 군은 시범운영을 거쳐 실내 공간을 제외한 야외 지정 구간에 동반 입장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려견 동행 시 관리사무소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 여부 확인을 마친 후 출렁다리를 건널 때는 반려동물 캐리어 및 유모차를 이용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출렁다리를 건넌 뒤 붕어섬 생태공원에서는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10㎏ 초과 중·대형견 및 맹견, 질병이 있는 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

군은 시범운영 기간 현장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파악하고, 반려견 동반 출입에 대한 입장객들의 의견과 반려인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반 여행 수요 확대에 따른 관광지 조성 및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임실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의회 김광훈 의원, 청년정책 전담조직 필요성 강조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이 떠나지 않는 장수,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의 대전환'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장수군의 청년과 아동층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으로, 2025년 1월 기준 총인구는 20,618명이나 청년층(20~39세)은 인구의 11.79%, 아동층(0~19세)은 10.84%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전출 인구의 대부분이 청년과 아동층으로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장수군은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김광훈 의원은 "장수군은 청년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청년 정착률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정책과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청년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청년정책 전환의 내용으로 ▲청년정책과 신설을 통한 장수군의 청년정책 의지 표명 ▲청년정책 통합 관리 및 아이디어 발굴 등 체계적 추진 ▲청년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및 성과 모니터링 실시 등을 제안했다.

김광훈 의원은 "청년이 찾아오는 장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 청소년 대상 월 14,000원 지원

장수군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이다.

바우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되며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신청해 두면 24세까지 지속해서 제공된다.

또한 올해는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된다.

단 바우처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청춘 치매예방교실' 호응

초고령 지역 현실을 고려한 무주군 '청춘 치매예방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 청춘 치매예방교실은 직접 마을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경로당 총 30곳에서 3차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1곳당 운영 횟수는 기존보다 5회 늘린 총 12회로, 현재 10곳에서 사전·사후검사와 인지 자극 활동에 해당하는 치매예방체조, 인지활동지 만들기 등을 진행 중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치매안심팀 선지숙 팀장은 "우리 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38% 정도로 치매 예방 관심도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어르신 맞춤형 인지자극 활동으로 실질적인 치매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치매 환자 수는 모두 1,175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환자가 약 99%를 차지하고 있다.

무주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담 및 조기 검진, 등록, 교육, 자원 연계 등의 '치매관리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개원 예정인 무주군립요양병원에도 치매 전문 병상이 갖춰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 면접 심사 실시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진안군이 2025년 진안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우수 강사 선발을 위해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를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은 강사들에 대한 서류 심사만 진행됐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강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우수 강사 인증제를 실시하기 위해 지원 강사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면접을 통해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 분야는 진안으로 귀화하거나 전입한 원어민 강사로 채용되기로 했으며, 신규 프로그램인 스포츠댄스의 경우 라틴댄스와 라인댄스가 분리돼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이 신청한 문화예술 분야는 장기적으로는 후진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시 등 환류 활동까지 확대 운영된다.

특히 진안군 평생학습을 통해 전문가가 돼 첫 강의를 시작한 강사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배움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면접을 통해 우수한 평생학습 강사를 선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출신 선수 86명, 제106회 동계체전서 선전

지난 18일 제106회 동계체육대회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바이애슬론을 비롯한 크로스컨트리와 스키알파인, 스노보드 종목의 무주군 출신 선수 86명이 출전해 경기를 치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설원 위 메달 사냥에 나선 선수들은 지난 19일까지 바이애슬론과 스키 알파인 종목에서 19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21일까지 종목별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20일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과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전북바이애슬론연맹과 전북스키협회, 도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선수단 격려에 나선 황인홍 무주군수는 "동계체육대회 경험이 개인의 실력을 키우고 무주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북돋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메달 총 62개로 4위를 차지한 가운데 무주군 출신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선수들이 금 11개, 은 15개, 동 17개 총 4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올해 2월 초에 개최됐던 제9회 중국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도 무주군 출신 바이애슬론 및 스키 종목 선수 6명이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고은정 선수는 바이애슬론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동계체육 강군 무주의 위상을 높였다.

선수들 전지훈련과 장비 지원 등 동계체육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은 올해도 4억 6천여 만 원을 투입해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을 비롯한 동계 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 확대 실시

임실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군은 올해 농가당 최대 800,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신청은 경작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이달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월 중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수확기까지 기피제를 보급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접근을 사전 차단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70 농가에 대한 기피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매년 피해예방시설(능형철조망) 설치 지원과 도내 최다 규모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군산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수익금 군산시 기탁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군산시니어클럽'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수익금 2,227,940원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노인 일자리 '우리동네자원순환' 사업단에서 모은 폐플라스틱 판매 수익금 1,257,940원과 '나눔자원관리'사업단의 헌 옷 재활용품 나눔 수익금 970,000원을 합친 금액이다.

지난 20일 열린 전달식에는 홍소연 군산시니어클럽 관장과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 2명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사업단 참여 동료들을 대표해 참석한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며,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앞장설 수 있어 개인적으로 보람찼다"라며, 적은 돈이지만 사업단 수익금으로 기부도 할 수 있어서 더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 다이로움 나눔곳간 백만 원 기탁

익산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다이로움 나눔곳간에 기탁된 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남철 지회장은 "지역 저소득 가정을 위한 나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는 지역 내 400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단체로,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회원들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농협 진안군지부, 제휴카드기금 4,414만 전달

제휴카드 적립금으로 지역 발전 재원 마련… 어려운 지역경제 선순환

NH농협은행 진안군지부(지부장 변성섭)는 지난 20일 진안군청 군수실을 방문해 2024년 진안군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4,414만원을 전달했다.

진안군은 NH농협은행 진안군지부 및 진안군청출장소와 2006년부터 협약을 맺고 법인카드, 공무원복지카드, 보조금카드 등의 사용금액 일부(0.1~1%)를 적립하여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진안군 세외수입으로 편성해 진안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기금은 협약 이후 올해까지 총 4억1천690만원이 적립됐다.

농협은행 진안군지부는 지난 20일 진안군청 군수실을 방문해 2024년 진안군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 4,414만원을 전달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법인카드와 보조금카드 등을 사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매년 적립기금까지 세입으로 돌려받아 진안군 경제를 위해 사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며 "기금은 군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 앞으로도 농협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매일유업 진암장학재단, 고창 대학생 장학금 1천만 지원

창업자 故 김복용 선대 회장 뜻 따라 2004년부터 매년 1000만 원 장학금 고창지역 대학생 지원

매일유업(주) 진암장학재단(이사장 김인순)은 지난 19일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고창지역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선발 장학생은 김동우(공주대학교), 김미소(전북대학교), 배지현(남서울대학교), 유성은(한양대학교), 이솔향(조선대학교) 학생이다.

진암장학재단은 매일유업 창업자인 故 김복용 선대 회장의 뜻에 따라 1996년 설립돼, 2004년부터 매년 1000만원의 장학금을 고창지역 대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다.

진암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총 105명의 장학생에게 누적 2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선발된 장학생과 부모님들은 수여식이 끝난 후, 군수실에서 심덕섭 군수, 매일유업 상하공장 이정택 공장장 및 임직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눴다.

매일유업(주)는 2003년 고창군 상하면에 국내 최초 치즈 전문 공장인 상하공장을 신축하였으며 자연치즈, 가공치즈, 유기농 우유 등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매일유업(주) 진암장학재단은 지난 19일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고창지역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순창군 애향본부, '펫티켓' 홍보 캠페인 진행

순창군 애향본부(회장 임예민)는 지난 19일 경천·양지천 산책로에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예민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반려견을 동반한 올바른 에티켓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 20장을 부착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예절을 의미한다. 이번 홍보는 배변처리, 타인배려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순창군청 앞 천변 주차장에서 출발해 경천 산책로와 양지천 산책로를 따라 진행됐다. 특히, 최영일 순창군수도 행사 시작에 맞춰 격려 방문을 하며 참여자들을 응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전북은행, 정읍시에 300만원 상당 생필품 기부

전북은행이 정읍시 저소득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7일, 전북은행은 선물꾸러미 100박스(300만원 상당)를 정읍시에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선물꾸러미에는 즉석밥, 라면, 김, 누룽지, 쌀과자, 물티슈, 치약, 칫솔, 수세미 등 생활 필수품들이 포함돼 있다. 전북은행은 이러한 생필품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

기탁식에 참여한 전상익 부은행장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학수 시장은 "이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 운봉읍, 1일 1가구 반찬 배달로 온기 전달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은주, 신동열/ 이하 운봉읍지사협)는 독거 및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40가구를 대상으로 운봉읍 4개 봉사단체(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회, 의용소방대)의 정성어린 손맛을 빌려 '영양 풍부한 밑반찬 지원사업'을 매월 2회 꾸준히 추진 중이다.

운봉읍 농가주부회 박선임 회장은 "운봉읍 농가주부회 회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만든 반찬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까지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다" 며 소감을 전했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소외될 수 있는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 매번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농가주부회원분들께 감사하다"며 "1일 1가구에 맛있는 반찬과 함께 따뜻한 온기까지 덤으로 배달함으로써 행복한 운봉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비봉면, 1호 착한 가게 유정식당 현판식

완주군 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심미정, 국쇠철)가 비봉면 1호로 착한가게에 가입한 유정식당(대표 이덕순)을 방문해 현판식을 가졌다.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문화 사업이다.

공동모금회에서는 '사랑의열매 착한 가게 현판'을 통해 이를 인증하며 가게홍보와 함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비봉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서로 협력해 착한가게, 착한단체·착한가정(개인) 등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한 기부자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심미정 비봉면장은 "정기기부를 해주신 이덕순 대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주민들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장수군 장계면 성관사, 계북면 17개 마을에 쌀 기탁

장수군 계북면은 장계면 대한불교조계종 성관사(주지스님 운진)에서 계북면 각 마을에 전달해달라며 쌀 17포(9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성관사는 장계면에 이어 계북면에도 쌀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의 소통과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운진 주지스님은 "새해에 계북면민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현 면장은 "계북면민들을 위해 쌀을 기탁해 주신 성관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一事一言〉

국가인권위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가

고상만
인권운동가

2001년 11월 25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날이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였다. 그 후 오늘까지 모두 9명의 인권위원장이 있었는데, 그중에 얼마 전까지 내가 꼽았던 '최악의 인권위원장'은 단연코 '현병철'이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때인 2009년 7월 20일에 제5대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교수 출신이다.

내가 그를 최악으로 꼽은 이유가 있다.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기 나흘 전인 2009년 7월 16일,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왜 당신을 인권위원장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권위 또는 인권 현장에 대해 저는 잘 모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라는 기상천외한 답변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인권 무자격자'로 정리되는 현병철의 답변은 당연히 시민사회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실제로 그는 인권과 관련하여 그 어떤 활동도, 학자로서 그 어떤 연구 실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인권위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까지 시켜줬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임명된 현병철은 인권위원장으로 제대로 일했을까? 재임 중 그의 언행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다. 특히 인권 감수성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몇 가지만 살펴봐도 충격적이다.

2010년 7월의 일이었다. 사법연수생들과의 간담회 중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어요. '깜둥이'도 같이 살고…"라고 했다.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반인권적 망언을 '장관급' 국가인권위원장이 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2010년 4월에는 재한 몽골학교를 방문했을 때 몽골 학생들 앞에서 "야만족(?)이 유럽을 200년이나 지배한 건 대단한 일이다"라는 말도 했다. 그날 행사장은 난리가 났다는 후문이다. 이런 지경이니 국가인권위 업무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연임 덕분에 가장 오래 위원장으로 재직한(2009년~2015년) 현병철은 '이전까지 찬란했던'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먼저 120여 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등급 보류〉 판정을 받는다. 그야말로 초유의 망신이었다. 현병철 위원장 임명 직전인 2009년 ICC '의장 후보국'에서 '등급 보류국'으로 단박에 전락한 것이니, 더 할 말이 무엇이겠나.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발생한 '용산 참사' 때에서의 대응이었다. 현병철 인권위는 용산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해 권력이 불편해 할 의견을 표명하는 데 주저했다.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인권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현병철 위원장 재임 6년간 내내 그러했다. 국가인권위가 몰락한 시기였다고 기억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러한 현병철을 지운다. 그를 능가하는 '진짜 최악'이 나타날 줄은 정말 몰랐다.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지금의 제9대 인권위원장 안창호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중순쯤, 가까운 지인의 모친상 부고를 듣고 조문을 갔다가 국가인권위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만났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그에게 농반진반 "그래도 과거 현병철 시대를 겪어봐서 견딜 만은 하시죠?"라고 말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진지했다.

"아니요. 정말 견딜 수가 없네요. 지금 돌아보면 차라리 현병철 시대가 더 나았어요. 그때는 위원장만 문제였는데 지금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러니 견딜 수가 없네요. 지금은 인권위에 있다는 게 정말 고통스럽네요."

그렇다. 보다보다 이런 인면수심의 집단을 일찍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국가인권위 일부를 구성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등을 바라보는 상식적인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이른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국가인권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고 있다. 내란 수괴의 불구속 수사 등 방어권 보장 등을 권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권고는 오로지 자신을 임명해 준 윤석열을 향한 '개인적인 충성심'의 발현일 뿐이다.

국가인권위 설립 목적을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불의한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사사건건 대립하며 파열음만 일으키던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이충상 상임이 끝내 국가인권위를 정쟁과 이념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이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은 사라지고 '우려한 것처럼'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위한 국가인권위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단 말인가.

그렇게 지난 10일 이들이 6대 4로 통과시킨 이른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국가인권위 역사상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치욕으로 남게 되었다.

그날, 존중 받아야 할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오물통에 처박힌 것 같아' 30년 넘게 인권운동가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나는 이 권고안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을 비롯하여, 찬성표를 던진 이충상,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그리고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진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국가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마라. 국가인권위의 주인은 당신들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러니 그만 사퇴하라.

당신들이 지켜줘야 할 해병대 채 상병과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은 외면하면서 22명의 초호화 대리인단이 변호해 주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방어권은 절박하다는 당신들의 인식에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를 만들어 준 국민들을 배신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찬성 5인'은 위원직에서 당장 물러나라.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무주, 세계적 관광지 도약할 기회 맞았다

무주군 무주읍이 세계관광청(UN Tourism)이 주관하는 '제5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서 한국 대표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무주를 넘어 대한민국 관광 발전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

무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제 UN Tourism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될 경우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공모는 지속 가능한 관광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을 발굴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이는 단순한 관광지 선정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마을을 조명하고 홍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무주읍이 한국 대표 후보로 선정된 것은 그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다.

무주는 자연과 문화유산,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다. 덕유산 국립공원은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무주반딧불축제는 친환경 생태 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태권도원은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무주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무주는 민관이 힘을 모아 관광과 공동체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는 오늘날 관광산업의 중요한 가치인 '로컬 주도형 지속 가능성'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무주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다면 국제적인 관광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UN Tourism의 공식 로고 사용, 국제 홍보 페이지 제작 등의 혜택을 통해 무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해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대한민국 지역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클 것이다. 그렇기에 전북도와 무주군 등은 최종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무주의 장점과 차별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한국에서는 고창 운곡습지 및 고인돌 등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바 있는데 이들 마을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적 특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에 힘쓴 결과였다. 무주 또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 정체성과 강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면 최종 선정의 기회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주는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무주가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요시선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 송도 정 태 천

어두운 밤 나 홀로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돌이켜 본다

밤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노라니

울퉁불퉁하게 살아온
내 삶을 리셋하고 싶다

새하얀 종이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씨투에스금융디자인 대표이사
시집 3권 발간
CHEZ·NOUS 301과 팥칼국수, 여백의 미
(예스24에서 구입가능)

| 독자광장 |

겨울철 전정, 과일 수확량 조절한다

건강한 과수나무와 과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동계 전정이 필수이다.

동계전정은 나무 지상부가 생육을 멈춘 겨울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수세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내부까지 햇볕이 스며들게 해서 꽃눈 분화와 발육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이다.

동계 전정을 제대로 수행하면 잘 자라도록 돕고, 나무의 수형을 균형 있게 만들어 주며 작업 효율을 높이고 병해충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과수 수량을 조절할 수 있고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동계 전정은 과수나무가 본격적으로 생육을 시작하기 전인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으며, 날씨가 너무 추운 날은 피하고, 맑고 건조한 날에 작업한다. 꽃샘추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시기와 방법도 조정한다.

노쇠한 가지는 제거해 나무의 에너지를 건강한 가지로 집중시키고, 가지가 빽빽하면 통풍이 어려워 병해충 위험이 높아지므로 가지 간격을 확보하고 수형을 단순화한다.

가지를 자를 때 건강한 눈을 남겨 다음 해 과실 형성을 유도하고, 과수 화상병 등 병이 의심되는 가지는 즉시 제거해 다른 나무로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운 겨울 행동이 굼떠지는 상황에 높은 곳에서 작업하므로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사과는 최근 세장방추형이라는 수형이 대세이고, 복숭아는 개심자연형과 2본주지형, 배는 5~6년 나무의 측지 갱신이 필요하며, 포도는 2차 전정시기이고, 나무가 2년 차 유목인 경우 아상처리도 필요해 품목과 재배방법에 따라 수행하는 작업도 다르다.

전정작업 전에는 감염 방지를 위해 미리 전정 도구를 해야 하며, 자른 부위가 큰 경우 도포제를 발라 병원균 침투를 방지한다. 또한 전정 후 남은 가지와 잎을 깔끔히 정리해 병해충 월동 장소를 제거한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도 과수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과 현지 기술지원을 통해 적절한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재배 중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각 지역 농민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과수특작팀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정성어리고 체계적인 전정 작업은 과수 농업인의 경쟁력 상승시키고 풍성하고 품질 좋은 과실을 수확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 올 한 해도 과수농사 풍년을 위해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을 당부한다.

/남원시청 현장지원과

문화재열전

불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목조, 불상

-지정일 - 2002년 8월 2일

-소재지 - 군산시 나포면 군둔길 226

-시대 - 조선시대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월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김관춘 |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6411-0835 |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임실지국 010-8642-6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3-1721 |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수군, 탄탄한 백년대계 정책으로 힘찬 약동

◆ 동부권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대한민국 생태관광 1번지
◆ 다채로운 축제 가득 100만 관광객 시대 · 국제산악관광도시 비전
◆ 생활체육 환경 조성·세대간 차별없는 행복복지 실현

지난해 민선 8기 청사진을 꼼꼼하게 그려낸 장수군은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및 로컬브랜딩 활성화로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농어촌 삶의질 지수 평가 전국 최상위권, 지방소멸기금 S등급 144억, 농촌협약 384억,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30억 원을 확보하고, 산업부 장계면권 LPG 배관망 구축사업 공모 등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그뿐 아니라 장계면 도시재생사업으로 138억, 계남면 유천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지정으로 280억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간 전북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장수는 지난 한해 크고 작은 성과들로 인해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중앙부처나 인근 지자체가 장수군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올해에도 탄탄한 백년대계(百年大計) 정책으로 힘찬 약동을 이어가겠다는 '작지만 강한' 장수군. 2025년 장수군정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의 '기회의 땅'에서 동부권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장수군은 지난해 고랭지라는 기후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기후위기 시대에 '기회의 땅'으로 가능성을 엿보며 동부권 스마트 농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동부권 스마트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690억원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

특히 1단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은 막바지 단계에 돌입해 오는 5월 청년 농업인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어지는 2단계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임대형 농장 사업의 핵심은 청년 농업인의 창업 초기 부담 완화다. 입주자들은 첨단 시설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술을 습득해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

또 최근 '2025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장수군 사과단지가 선정되며 군의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실현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기계화·무인화에 최적화된 미래형 스마트 과수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37억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노동력은 30% 절감하고, 상품성은 30% 증가되는 노지 스마트 파밍으로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정고장, 깨끗한 장수 '대한민국 생태관광 1번지'로!

장수군은 아이들이 뛰어놀기 걱정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증가하는 관광객에게는 자연이 선사하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청정고장, 깨끗한 장수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이 국가생태관광지로 최종 지정되며 청정고장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뜬봉샘 생태공원에는 자작나무숲, 수국정원이 조성돼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할 뿐 아니라, 자연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손꼽힌다. 또한 하늘다람쥐, 수달, 세풀투구꽃 등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1급수 지표종인 옆새우와 가재가 서식하는 생태관광 1번지이다.

이번 국가생태관광지 지정으로 2025년부터 장수군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생태관광 기반시설 관리, 지역협의체 구성 및 주민 교육, 홍보활동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장수군은 환경 보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군의 재활용률이 크게 늘어 지난해 대비 50% 증가했다. 폐기물 발생량이 5% 감소하고, 재활용량은 41% 증가한 결과다. 이는 마을별 방치 쓰레기 일제정리, 읍·면 시가지 청소 시스템 구축, 슬레이트 철거사업 조속 추진 등 군이 펼친 다각적인 정책의 성과이다.

다채로운 축제로 가득한 장수

장수군은 사시사철 다채로운 축제로 지역브랜드 가치와 지역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군 대표 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작년에 'RED FOOD FESTIVAL'이라는 새로운 명칭과 콘텐츠를 도입해 다양한 변화를 했고 올해에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문화관광부 예비축제에서 현행축제로 진입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먹거리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이외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휴양지인 방화동 계곡에서 펼쳐지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줄 '쿨밸리 페스티벌',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읍·면축제, 크고 작은 문화축제들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100만 관광객 시대 및 국제산악관광도시 비전

'장수군 1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도심의 산들이 발전을 이유로 훼손될 때 장수의 '산'은 발전에서 한발 비켜난 덕분에 역설적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월 100억원 규모의 국토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에 선정돼 블랙야크와 손을 맞잡았고, 그간 공모 등을 통해 확보된 ▲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196억원 ▲ 백두대간 육십령 지방산림정원 60억원 ▲ 지덕권 신광재 산림고원 조성 2,644억원 ▲ 천천에 놀라온 65억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완성도 있는 국제산악관광도시로 명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2월에는 천천면 비룡리 '신광재' 일원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사업으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에 선정되며 국제산악관광도시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여기에 '아이들의 천국'로 불리는 장수누리파크 시설의 발물놀이장, 키즈카페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관광객 수가 170% 이상 증가했다.

가파른 관광객 유입을 견인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살기좋은 장수 건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살기 좋은 장수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장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323억원 ▲ 계남면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448억원 ▲ 참샘골 행복주택 조성 50억원 등으로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개발공사와 지역발전 협약 체결, 전북개발공사의 '더 특별한 전북형 행복드림 반할 주택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특히 전북형 반할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의 임대료를,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체육 환경 조성

누구나 함께하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장수종합실내체육관과 계남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사계절 내내 편리하고 안전한 운동 공간을 제공하며, 오랜 숙원사업이던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주민의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군은 최근 민간 기업 ㈜리턴과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민자 100%로 약 30억원이 투입돼 전지훈련, 재활훈련, 군민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목적 체육시설이 조성되면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장수군에 유치하고, 연간 최대 3,000여 명의 선수가 군에 머무르는 전지훈련이 시행될 예정이다.

세대간 차별없는 행복복지 실현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됐던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정책도 꼼꼼히 살펴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 정주여건 개선에 힘쓴다.

지역소멸이 아닌, 장수의 먼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을 위해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등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또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장수청년레벨업, 창업지원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단계적 청년 지원을 통해 장수군을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오래 머무르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인터뷰] 최훈식 장수군수 ·····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백년대계를 그리는 정책 펼치겠다"

2025년 장수군은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새로운 길을 열고 미래를 창조하며 장수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 장수군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그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모두가 어우러지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다시 오고 싶은 장수'를 선보여 장수군 100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철따라 유행하는 새로운 아이템만 따라가다 보면 고유한 잠재력과 특색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장수군은 새로운 것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수가 가진 것, 그동안 해오던 것을 잘 보전하고 이끌어 가면 미래에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